

바다 피어싱(Body Piercing)의 허와 실

홍명호 부천대성병원 가정의학과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다. 새싹들은 그 어린 몸으로 두터운 나무 껍질을 뚫고 나와 봄별을 받는다. 새 봄을 맞는 새내기 대학생, 직장인들이 제 각기 몸 치장을 한다. 은빛 반짝이는 푸른 아이새도나 얼굴 화장을 하는가 하면 목, 손목, 발목, 허리에 주렁주렁 장식을 건다.

주로 젊은 여성들이 귀에 구멍을 뚫고 고리를 달아 치장을 했는데, 언제 부터인지 남자들도 한 쪽 귀에 귀고리를 달아 멋을 부린다.

귀에만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배꼽, 눈썹 끝이나 코에도 달고 다닌다. 몸에 고리를 달고, 문신을 새겨 넣는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1990년대부터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은 귀고리를 한쪽 귀에 몇 개씩 달고 몸에 문신을 하고, 사람들도 그 전처럼 이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 보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 들이고 있다.

올 봄에도 아마 자기 몸에 구멍을 내어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일이 흔할 듯 한데, 이러한 행동이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자.

몸의 일부에 구멍을 뚫고 부착하는 장식물은 등그런 반지형의 고리나, 둥근 테, 장식 단추형, 장식 못 유형, 아령 모양 장식 등 몸의 어디에 구멍을 내서 부착하느냐에 따라서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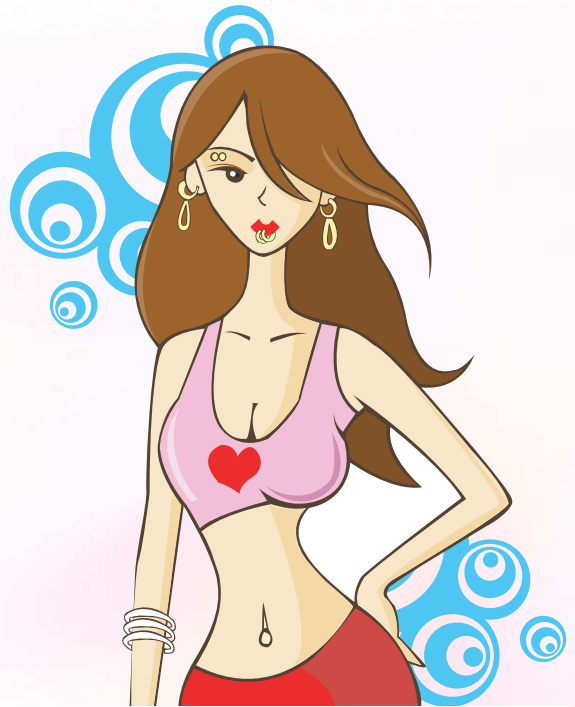
부착 부위는 귀가 제일 많고, 혀, 입술, 코, 눈썹 끝이나 눈꺼풀, 배꼽 등이며, 외국의 경우에는 성기에도 구멍을 뚫고 고리를 다는 모양이다.

대부분의 장식물 재료는 금속이다. 스테인리스 강철, 금, 티타늄, 합금, 니오븀 등의 화학물질인데, 순수한 스테인리스 강철은 사실상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지만, 흔히 니켈(백동)을 섞은 강철은 니켈에 의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순도가 높은 금도 피부 반응이 드물지만

금의 강도나 형체를 만들기 좋게 다른 금속을 섞은 순도가 덜한 금을 사용하면 예민한 사람들 피부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순도가 아주 높은 강철이나 금이라도 귀고리 장식에서 살을 관통하는 못 부분이나 조임쇠는 싸구려 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니오븀과 티타늄은 가볍고 단단한 원소 금속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고 피부 반응을 일으키는 일이 드물다.

순수한 강철, 순금, 니오븀이나 티타늄 재료의 고가 장식품이라도 빼고자 할 때 잘 빠져야 하고, 살을 관통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매끄러워야 하며, 소독 능력과 자정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귀에 구멍을 뚫고 귀고리를 단 사람들의 35%에서 문제를



경험했다는 보고가 있다. 제일 흔한 문제는 귀를 뚫은 부위 감염 77%, 알레르기 피부 반응 43%이었으며, 켈로이드 형성 2.5%, 귀고리를 한 귀가 외상을 입어서 귀가 찢어지는 경우가 2.5%였다.

최근에는 귀에 구멍을 여러 개 내어 두서너 개의 귀고리를 달고 다니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 풋볼에만 구멍을 뚫는 것이 아니라 귀의 위쪽 연골에도 구멍을 뚫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고열과 두통, 턱 주위가 아파서 감기라고 찾아온 열 서너 살의 여학생을 진찰하는데 눈썹이 끼고 턱 아래, 귀 뒤의 림프선이 부어서 만지면 접촉통이 있었다. 귀를 보니, 풋볼을 뚫고 단 귀고리 이외에 귀 위쪽 연골에도 두 개의 구멍을 뚫고 고리를 달았는데, 고리를 단 부위가 시뻘겋게 부어 있고 피가 섞인 누런 고름이 고리까지 엉겨 있었다. 귀의 연골까지 염증이 파급되면 귀가 쭈그러져서 보기 흉하게 되니까 귀에 단 고리를 빼고 치료를 했다. 다행스럽게도 이 여학생은 몇일 만에 귀에 부기가 빠지고 고름 흐르는 것도 멎고 열도 떨어져서 호전이 되었다.

예전에는 뜨거운 밥 그릇이나 냄비를 들다가 뜨거우면 “앗! 뜨거” 하고 만지는 곳이 바로 귀였다. 그만큼 귀의 연골 부위는 혈류가 거의 없는 무혈 조직이다. 혈액 공급이 거의 없는 연골에 연골주위염이나 연골주위농양은 연골부위 귀를 뚫은지 한 달 이내에 발생한다. 증상은 귀가 부어서 아프고, 만져 보면 열감이 있고, 색깔은 붉은데, 이러한 변화는 혈액공급이 비교적 좋은 풋볼에는 없는 것이 보통이다. 슈도모나스균, 포도상균, 연쇄상균 감염이 흔하며 체균력과 항균력이 비교적 우수한 항생제를 쓰지 않으면 귀의 변형을 초래한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 급속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은 포도상균, 연쇄상균 감염의 위험이 더 높다. 풋볼을 뚫고 생긴 염증은 연골부위에 생긴 염증에 비하여 그리 심각하지는 않지만, 일단 귀에서 피 고름이 흐르고 붓고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염증에 관한 한 풋볼이 귀의 연골조직 보다 더 위험하지만 뚫은 부위의 흉터가 두꺼워 지고 커지는 경우와 켈로이드 형성에는 풋볼이 호발 부위라 할 수 있다.

니켈에 대한 접촉성 피부염도 만만치 않고, 합금 성분이나 은 성분이 피부에 침착하여 피부 변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

다. 주사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귀에 구멍을 뚫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의학의 기초가 전혀 없는 일반 사람들이 귀나 코를 뚫는건 불법이 아니다. 여기서 인용한 보고에도 65%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었고, 35%의 사람들에서만 문제가 생겼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그 처리는 귀를 뚫어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는 듯 하며, 귀 뚫기를 선택한 본인이 져야 한다.

별 탈 없이 귀고리를 달고 다니다가 넘어지거나 자전거, 자동차 사고, 동네 조기축구 같은 접촉운동, 사람 대 사람간의 폭력, 격렬한 애정표현 때 귀고리를 잡아 당기거나 해서 귀에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귀고리가 귀 외곽에 가까울수록 귀가 찢어지고 귀고리가 귀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 크고 무거운 귀고리를 오랫동안 과시하고 다니면 뚫은 구멍이 넓어지거나 풋볼이 두 개로 갈라질 수도 있다.

귀의 연골부위 귀고리에 이러한 사고를 당하면 동네 의원에서 처리하지 않고 대학병원급의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예후 또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만만히 볼 문제가 아니다.

입술, 볼, 혀의 정중앙선에 구멍을 뚫고 장착물을 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구멍을 뚫다가 혈관을 건드려서 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혀를 뚫고 장착물을 괴어 놓을 때는 거의 100% 부어 오르므로 처음에는 아령 모양의 장착물을 부기에 파 묻히지 않을 정도의 긴 것을 사용해야 한다. 입술이나 볼, 혀 등 구강에 장착물을 꿴 것은 사실 좀 드물기는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 이는 숨 쉬는 길을 막아서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인데, 입술이나 볼, 혀를 뚫는 행위 자체가 그 부위에 외상을 입혀서 붓고, 특히 혀는 부으면 직접 기도를 막을 수도 있고, 장치한 장착물이 기도를 폐쇄할 수도 있다.

혀를 뚫고 부착한 이렇 모양의 장착물은 치아에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어서 치아가 부스러져 나가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예 앞니를 몽땅 뽑아 버리고 부분 틀니를 하고 혀에 장착물을 다는 좀 심한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입안은 수많은 세균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는 곳이므로 세균 감염의 기회는 있으나 실제로 감염이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다.

성기에 구멍을 뚫고 고리나 둥근 테를 다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의학적으로 권고하기 어려우니 삼가해주기를 바란다. 